

천연꿀 수입개방 양봉농가는 시름 과수농가도 걱정



지난 10일 타결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천연꿀에 대한 관세를 15년 뒤에 완전철폐하기로 해 양봉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FTA가 발효되면 현행 243%인 천연꿀 관세가 15년 뒤 모두 사라진다. 그동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무관세로 꿀을 들여온 적은 있지만 관세철폐를 통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국내 연평균 꿀 생산량은 2만5000t이고 1kg당 7800원 정도다. 이에 비해 베트남산 꿀은 1kg에 2500원대로 관세가 철폐되면 국산의 3분의 1수준에 떨어지게 된다. 현재 국내에 TRQ물량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꿀의 가격은 1kg에 4000원, 호주산은

한·베트남 FTA로 관세 15년내 철폐

1kg 7800원 대 2500원...경쟁력 상실

수분 꿀벌 사라져 과수·천연식물 타격

2000원 정도다.

지난해 천연꿀 수입은 688t 규모로 미국에서 450t, 뉴질랜드에서 110t, 호주에서 82t이 각각 들어왔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양은 7t 정도로 적지만 관세가 없어지고 베트남산 꿀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경우 양봉농가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규혁 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봄에만 꿀을 생산할 수 있는데 반해 베트남은 사시사철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국산 꿀의 가격은 세계에서 두세번째로 높는데 꿀시장이 개방되면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벌이 과수 등의 꽃가루를 옮기는 등 생태계에서 역할이 크다”면서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양봉산업 붕괴는 전체 농업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봉농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전국 4만 양봉농가를 우롱했으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수협중앙회

권익위 청렴도 평가 ‘우수’

수협중앙회가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 2년 연속 반부패·투명 조직문화 구축성과를 인정받았다.

수협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평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640개 기관을 대상)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소속직원, 수협과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수협 관련 학계와 출입기자, 퇴직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수협에 대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해 점수화한 것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청렴조직으로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한 노력의 성과”라며 “세부적인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 분야를 개선함으로써 청렴도 수준을 더 끌어 올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의 내실화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부패 취약분야의 근원적 제도 개선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행동강령 준수문화 정착 등을 주요 전략으로 담은 부패방지 및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T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5년

급식행정 투명성·효율성 높였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2010년 8월 도입한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시스템·개념도)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17일 aT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학교 급식 수요기관인 학교와 공급업체를 중심으로 급식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사이버 중계 시스템인 ‘eaT’는 대면 수의계약 방식을 중심으로 급식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주요 강점은 거래 중인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와 ‘식재료 전자계약’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시스템에 등록된 공급업체 현황과 계약정보가 식약처 식중독 조기 경보시스

템에 자동 전송돼, 식중독 발생 즉시 학교 담당자가 입력하지 않아도 식중독 경보를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문제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입찰 사전방지, 사후관리에도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aT는 중북 IP업체 제재를 목적으로 ‘부정입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지역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80여 부정당 업체를 적발하고 민·형사적 제재와 함께 자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올해는 부정입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학교급식 안전성을 보다 강화했다. aT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민국 IT이노베이션 대상과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종전 aT센터 본부장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전산연계 추진 확대는 물론 공사 전문가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자 등 전문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급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 확산 조짐...돼지고기 수출 회복 발목 잡나

올들어 1700t 30여개국에 수출...작년보다 10% 늘어
80% 이상이 가공육...이미지 실추로 신선육 수출 타격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이 확산 우려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돼지고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북 진천 장관리 A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2주만에 첫 발생지에서 3km 내 위치한 4개 농장이 잇따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번에도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O-타입형으로 백신접종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구제역이 계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내수는 물론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태국, 일본, 중국, 홍콩 등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돼지고기 수출물량(통관기준)은 1900t(48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2012년 1400t(290만달러)에 비해 50.9%(63.1%)가 늘어난 수치다.

올 들어서는 10월까지 1700t(660만달러)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600t(380만

달러)보다 10.1%(72.1%) 증가했고, 금액면에서는 지난해 실적을 이미 추월했다.

하지만 육류수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돼지고기 제품은 햄·소시지 등 대부분 열처리된 가공육이라 이번 구제역이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수출에 대한 통계상 분류가 명확하지 않지만 전체 돼지고기 수출물량중 80% 이상이 가공육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육류수출협회 관계자는 “지난 7월 우리나라가 백신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완전 청정국 지위를 얻기까지 신선육 수출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며 “이번 구제역 파동으로 가공육을 주로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 큰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T 관계자도 “지난 5월 백신청정국 지위 격상 후 신선육 수출을 위해 개별 상대국과의 의할 여지가 남아 있었으나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변수가 생겼다”며 신선육 수출이 당분간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구제역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돼지고기의 수출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육류코너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기본3인분 3+3 = 30,000원
기본4인분 4+4 = 4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국내산갈비2+2(480g) 20,000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대만리는만리도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광주, 호남지역 체인점모집

민물수 있는 우리 지역광주의 본사 프랜차이즈입니다.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임점(251-8216)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바리다매!!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착한소장수는 불경기형 맞춤형브랜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